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제200호

충청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 전화 (043)220-5123 | <http://assem.cb21.net> (2009년 10월)

그리움은

시인 김정호

결 무늬 일렁이는
오뉴월 청 보리 이삭은
하염없는 그리움 간직한 채
이슬처럼 나뒹군다

시리도록 훑고 지나간
그리움은
뉘웃거리는 서산에 걸쳐있고

나팔꽃도
피약별을 이기지 못해
흙속에 얼굴을 묻힌채

그나마
숨결은 그리움을
잉태하고
산고 끝에 순산하니
나목처럼
칼바람 눈보라 속에
그리움이 묻혀버렸다

개 회 사

“첨복단지” 세계적 의료산업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이 대 원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7월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중에도 민생현장을 찾

아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0일 우리 도민이 그토록 열망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대구와 공동으로 선정되어 아쉬움은 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로 우리 충청북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10여년 이상 체계적인 준비와 155만 도민의 정성이 한데 어우러져 얻은 빛나고 값진 결과이며, 충북인의 금지와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155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오송이 수도권과 인접하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식약청 등 관련기관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대구와의 경쟁에서 당당히 우위를 점하여 세계적인 의료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와는 11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제283회 임시회는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도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

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 건설과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2010년 정부예산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가 가을철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를 비롯한 전 행정기관과 단체,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나서 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155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등 19건 심의



▲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현안 심의

제283회(임시회)

충청북도의회는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제283회 임시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견,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처리하고 도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지방의원 겸직신고서 제출안내, 전체의원 연찬회 개최, 제284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신종인플루엔자 관련사항, 충북미래관 개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

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아동지원센터 지원조례안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안,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성립전예산 사용계획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한 간담회와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충북미래관 개관식 참관, 2009인천세계도시 축전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선진시설 견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등 현안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실시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첨복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첨복단지 유치 결실 맺어 -

충청북도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가 9월 1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고,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끝으로 그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첨복특위는 지난 2008년 9월 18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9명의 도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첨복단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관련회의 및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방문,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첨복단지가 우리 도 오송으로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협의

5분자유발언

경제특별도 추진에 대하여



송은섭 의원
〈산업경제·진천 제2〉

정우택 지사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8월말 현재 155개 기업과 20조 6,769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투자유치가 충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잘사는 충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도지사님의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경제관련 조직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경북 등 8개 시·도는 경제담당 실·국 조직을 기획조정 및 관리실의 차순위 직제로 조정하여 경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시·도에서는 민선 4기 들어 경제 및 통상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충청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될 '충청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부서와 경제통상국의 조직을 통합하여 (가칭)경제사업본부로 확대하고 본부장을 이사관으로 승격하면서 직제순위 또한 정책관리실 다음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희망을 충북발전의 계기로 승화



한창동 의원
〈건설문화·청원 제1〉

충청북도도는 지난 8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조정연맹총회에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충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 크게 축하받을 겹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값지게 이루어낸 대형 프로젝트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충북발전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유치'로 충북의 미래성장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앞으로 백년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5만 도민과 함께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동참하여 단합된 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중원문화와 함께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성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8월의 희망을 경제특별도 충북건설 신화창조와 함께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켜, 작지만 크고 행복한 결실이 이루어 '도정 100년사'에 가장 큰 영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 대응방안 마련을



최광옥 의원
〈교육사회·한나라당〉

지난 4월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신종인플루엔자 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도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교육청에서 환자가 54개교 227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 혹은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국제공예비엔날레는 9월 23일부터 40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도내 거점병원이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격리치료가 불가능하여 다른 환자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어, 격리병동으로 지정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신종인플루엔자 조기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며, 감염경로 및 진행 상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기금까지와는 또 다른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질병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일련의 메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소중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현안 심사



▲ 충청북도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현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복 의원)는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

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히,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겸직 신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직무로 하되,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 법인 임직원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농업인은 영리행위 제한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제284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도정 및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되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소방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심사처리



▲ 소방본부 항공구조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구조구급장비 확인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2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처리에 앞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매입부지를 현지 확인을 거쳐 의결하는 등 빈틈없는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노력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 통합관리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등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연만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

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하였다.

특히 주민발의로 상정된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로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간의 연계성, 최근 정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조례와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부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자세한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조례로 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하였다.

▲ 연만흠 의원
(증평 제2선거구)

9월 18일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충북인삼유통센터 준공식 및 증평 인삼축제에 참석

▲ 강대원 의원
(한나라당)

9월 3일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충북도당 전진대회에서 충북발전방안 토의 및 사회진행

▲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9월 10일~12일까지 3일간 단양군에서 열린 제11회 국회의장기 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에 참석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9월 8일 청주시 장성동에서 열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준공식 및 개원식에 참석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9월 26일 음성군에서 열린 제19회 음성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참석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9월 18일 ~ 20일까지 3일간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제3회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9월 19일 영동군 황간면 황간 향교에서 열린 추계 석전대제에 참석

교육사회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제정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마련 촉구



▲ 인천대교 현지를 방문하여 선진기술을 견학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 현)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최미애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인천대교 현장 방문 및 도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과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보육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및 정책방향과 시행계획 등을 조정·심의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등을 명기하였고 조례제정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

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동의 보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중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개정안에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심사보류'로 의결하였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해선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 및 확산방지체계 구축으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서주길 주문했다.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9월 2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근리 실무대책위원회 참석

▲ 최미애 의원
(민주당)

9월 23일 행동하는 북지연합에서 주관하는 '안다미로 아카데미' 행사에 참석

▲ 김광수 의원
(청주 제1선거구)

9월 15일 지방자치정책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한 지방자치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 이범운 의원
(단양 제2선거구)

9월 21일 전라남도 나주에서 열린 제29회 전국 장애인체전 충북 사이클 선수단 경기 참관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9월 23일 제천시 교암동 비행장에서 열린 제천한방건강축제 폐막식에 참석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9월 30일 충북새일본부에서 주관한 제2차 직업의식교육에 참석

▲ 최광옥 의원
(한나라당)

9월 24일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에서 열린 청원군 옥산면 농촌일손돕기 행사 주관

▲ 최재옥 의원
(증평 제1선거구)

9월 23일 증평 시내일원에 열린 추석맞이 증평사랑대청결운동 행사에 참석

산업경제위원회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염원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견학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송도·영종·청라지구의 향후 개발계획 청취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고층빌딩을 보니 날로 발전하는 인천이 부럽고 충북도 하루 빨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면 좋겠군요”

9월 15일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을 찾은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 의원들 모두는 갯벌을 메우고 그 위에 수십층의 현대식 고층빌딩을 세우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에 탄성을 발했다.

송도는 2003년 8월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 한창 개발중에 있으며 인접한 영종, 청라 지구와 함께 향후 인천 발전의 견인차를 담당할 지역으로 이곳을 찾은 의원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충북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희망을 걸었다.

한편 9월 14일에는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하고 이어 어려운 현실에 처한 농업을 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7개 농민단체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업예산의 확충,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방안 수립’ 등 총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열린 토의를 벌였으며 각 단체별 농업과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내 농업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자문위원 활용 직무 연찬회에서는 ‘5+2광역경제권의 형성에 따른 충북의 대응 전략’과 ‘충북 식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열린 토론을 벌였다.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9월 4일 청원군 오창읍 호수공원에서 열린 2009 오창호수 영화제 참석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9월 14일 공단오거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성공개최 발대식 및 그린&스마트코리아 캠페인’ 참석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9월 16일 제천시 고암동 비행장에서 열린 제천한방건강축제 개막식 참석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9월 19일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청산향교에서 열린 추계석전대제 참석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9월 19일 2010년 내수면 양식자원생태현 산업화를 위하여 진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 추진 기로 협의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9월 17일 충주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9회 우특문화제 개막식 참석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9월 17일 보은군 보덕중학교에서 열린 읍면대학 보은군 노인회 친선게이트볼대회 참석

건설문화위원회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처리 및 장애인체전 선수단 격려



▲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 간담회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대체하여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또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

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광역대전권의 토지이용 및 계획연구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국내인구 부분에 대하여 언론 보도 수치와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에도 소외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입안 노력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9.21~9.25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충북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고 충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9월 21일 대전시 유성(TP)에서 열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9월 23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09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9월 26일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보은군민 건강걷기대회 주관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9월 12일 단양군 체육대회 주관 및 대회사, 15일 영춘 구인사에서 열린 삼희향놀이 참관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9월 14일 괴산읍 대덕리에서 열린 중앙염연초생산조합 청사 및 작업장 준공식 참석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9월 4일 옥천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옥천군 이장단 워크숍 참석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9월 17일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음성군 제28회 설성문화제 참석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9월 15일 청원군민회관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한마을대회 및 16일 열린 청원사랑포럼에 참석

세무상식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조세지원제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150만원공제(연간소득 100만원이하)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씩 추가공제(연간소득 100만원이하)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면제 압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다만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한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더불어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며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장애인용 차량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조운배-세무사>

건강상식

환절기 건강관리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찬 공기'이다.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밤낮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지는 가을철에는 신체가 균형을 잃고, 면역성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

더구나 우리 몸은 체력소모가 많은 여름동안 열 생산을 억제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여 피로누적으로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감기의 증상은 누구나 쉽게 알고 있는 대로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 콧물, 열, 가래, 설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재채기나 기침에 의한 비말이나 손과 같은 오염원과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전파되는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염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집단생활을 하는 장소나 공공장소로의 외

출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청결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고, 가글을 자주해주는 것이 좋다.

감기 예방을 위해선 다음과같이 실천하는것이 중요하다.

첫째,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밤에 잘 때 문을 꼭 닫고 자야 하며 새벽이나 저녁에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둘째,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피로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쌓인 피로는 바로 풀어준다. 운동 후 샤워시에는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 준다.

셋째, 감기에 걸린 경우, 약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다.

특히 폐렴이나 결핵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하므로 초기에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함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

역개발채권 발행제도 관련 규정 정비

-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 조성 및 식약청의 식·의약품 업무 지방 이관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
- 정원의 총수 조정 : 2,781명 → 2,794명 (증13명)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 조성 및 식약청의 식·의약품 업무 지방 이관에 따른 전담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 사무를 신설·이관 조정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7년 5월 17일「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 해소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모범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예 따른 인용조문 변경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개정예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조항이 변경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 도지사의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지원
-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용조문 개정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따른

충청북도 미동산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 도민의 휴식공간인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미동산수목원의 진흥실시 계획 수립·시행, 수목원의 각종 시설물의 개방,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규정함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개발제한구역 기존 해제가능총량 4.141km²의 10~30%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어, 추가해제가 가능한 1.242km²를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재산의취득 :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산3-1 등 16필지
- 재산의처분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93번지 외 1필지

칼럼

녹색성장을 통한 아름다운 충북건설



진 영 진

현 충청북도교육감박희장

얼마 전 뉴질랜드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곳의 한 도시에는 빌딩 사이마다 푸른 정원수가 잘 가꾸어져 있었고 거리엔 가로수가 우거져 있었으며, 지방에는 단층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부지에는 건물보다도 수목과 화초가 잘 어울려져 있는 정원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넓은 녹색 초원에는 양떼들이 모여 풀을 뜯고 있었고 건물들도 2차색으로 깔끔하게 단장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 나라가 주로 관광과 목축업으

로 주민 소득을 향상시켜 살아가는 복지국가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로써 항시 해풍이 불어 오고 빌딩과 주택은 숲속에 묻혀있어 공기의 오염을 막아주는 그야말로 저탄소녹색국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느꼈다.

또한 넓은 녹색 초원에는 양떼들이 모여 풀을 뜯고 있었고 건물들도 2차색으로 깔끔하게 단장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미관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 나라가 주로 관광과 목축업으로 주민 소득을 향상시켜 살아가는 복지국가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저탄소 운동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는 공기를 오염시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탄소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푸른 하늘, 맑은 공기, 깨끗한 생명수, 친환경농산

물 확보 등을 위하여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자연환경보존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청주, 충주, 제천)를 중심으로

첫째, 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를 증차하고 하이브리드카(휘발유와 건전지 겸용)를 보급하여 출퇴근 시간은 공무원부터 자전거 타기를 외국처럼 생활화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막기 위해서는 정화시설을 강화 하여야 하겠다.

둘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하수구 시설을 재정비하고 오수, 폐수 업체나 가정의 단속을 강화하며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에 따라 하천의 오염을 막아 하천의 생태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기 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녹지공간을 확대하여야겠다. 예컨대 가로수를 상록수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등)로 교체하고 공원을 증설하며 고층 옥상에도 정원수를 가꾸어야겠다.

앞으로 신축 건물에는 허가 조건으로 정원수를 일정량 이상 심도록 하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자연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가정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하고 가정마다 정원수를 가꾸며 오페수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단거리는 도보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여야겠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겠다.

시책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정이나 업체는 의법처단하여야겠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녹색공간을 많이 늘리기 위하여 푸른 숲을 많이 가꾸어 공기를 정화시켜야겠다.

끝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아름다운 충북을 건설하여 살기좋은 행복한 고장이 되길 기대 한다.

법률상식

종중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질문] 종중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 보아 여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종중이란 동일선조의 후손집단인데도 남자들만 종중원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종중의 성립요건 및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기존 판례는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 역시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이라는 종중의 주목적과 종래 관습상 양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그러나 2005. 7. 21.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와 아울러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인

하여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는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가 지향하는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면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제284회 임사회 의사일정 계획(안)

- 회 기 : 2009. 10. 12(월) ~ 10. 21(수) (10일간)
- 의사일정

일시	부 의 안 건
10월 12일(월) (14:00)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사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9. 10. 12 ~ 10. 21(10일간) 2. 기타 안건처리
10월 13일(화) 10:30	● 제2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행정소방위원회 - 산업경제위원회
10월 14일(수) 10:30	● 제3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교육사회위원회 - 건설문화위원회
10월 15일(목) ~ 10월 20일(화)	● 본회의 휴회 • 상임위원회 활동 -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방문
10월 21일(수)	● 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의회운영 위 원 회	•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임사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주요현안 처리
행정소방 위 원 회	• 도정질문(도정 및 교육시책) • 소관부서와의 간담회 및 의안처리 • 기타 현안 처리
교육사회 위 원 회	• 도정질문(도정 및 교육시책) • 소관부서와의 간담회 • 기타 현안 처리
산업경제 위 원 회	• 도정질문(도정 및 교육시책)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문화 위 원 회	• 도정질문(도정 및 교육시책)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전체의원 연찬회



▲ 9월 10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 9월 23일 성심노인요양원과 충북육아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한 정담을 나누었다

窓邊客談 창변객담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화로

우리 조상들이 애용하던 화로는 불의 용도를 효율화하는 지혜 가운데서도 출중한 것이었다. 사계절이 분명한 온대기 후지역에서 겨울철 추위를 막는 것은, 식량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다. 때문에 화로는 변화가 많은 기후환경에 잘 적응해 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함께 유난히 두터운 가족애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상징물이다.

벼락 등 자연발화로 인한 산불에서 불의 유용성을 발견한 인류가, 인위적으로 불씨를 만들고, 보존방법을 터득하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발화방법이 어려웠던 시대에는 단순히 불씨의 보존수단으로 쓰였던 모닥불의 잔해를, 아동이 편리하고 보온까지 겸하는 다목적용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화로다.

이런 화로는, 폐치카나 난로 보다 개발

이 앞섰던 건 물론, 열의 이용 면에서도 역시 효율적이었다. 폐치카나 난로의 연료는 일회성 소비에 그치는 데 반해, 화로는 별도의 연료를 소비하지 않고 3차의 열까지 이용하여 조리과 난방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궁이에 불을 때면, 불꽃 열이 솥을 달구 음식을 익힌다. 남은 열과 연기가 고래를 통과하는 사이에 구들을 덮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한다. 이차 목적의 달성이기이다. 조리가 끝나고 아궁이에 남은 숯불을 화로에 담아 방으로 옮기면, 방안 공기를 따뜻하게 하면서 동시에 장이나 찌개 따위를 끓인다. 열에너지의 삼차, 사차까지 알뜰히 이용하는 셈이다.

화로의 용도는 이런 열의 효율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화로가 놓인 방안엔 언제나 정이 넘친다. 화로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웃과 친지간의 연대감을 두텁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닥이 썰렁한 방이라도, 한가운데 화로가 놓이면 금세 온기가 돌아 훈훈해진다. 방금 아궁이에서 담아온 숯불 가운데 삼발이나 부엌가락을 걸쳐놓고 토장국이라도 설설 끓일 때면, 구수한 냄새와 함께 퍼지는 온기가 소박한 삶에 행복을

느끼게 한다. 추운 날 외출에서 돌아온 가족, 마실 온 이웃의 손을 잡아 인도하는 곳은 으레 화롯가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와 화로의 열기가, 바깥 찬 바람에 얼어 온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푸근히 녹여준다. 그래서 화롯가는 베풀고 나누는 온정의 자리였던 것이다.

눈 내리는 밤, 질화로의 잿불 속에서 익어가는 감자나 고구마, 알밤은 구수한 맛 못지않게 가족 간의 일체감을 높이는 일종의 접착제다. 물어놓고 기다리는 동안 오순도순 나누는 화제 속에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날 얘기부터, 이웃집 갑순이 혼담까지 무궁무진하다. 감자, 고구마가 속살을 익히면서 끼는 방귀소리에 배꼽을 쥐기도 하고, 칼집 내는 걸 감박 잇고 묻은 알밤이 터질 때면, 온 가족이 재를 뒤집어쓰면서도 웃음바다가 된다.

주부들이 쓰는 안방 화로에는 부엌가락 외에 반드시 인두가 꽂힌다. 손바느질로 옷을 꿰매던 시절에는 인두가 혼수품목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부녀자들의 필수품이었다. 옷감의 작은 구멍을 꿰거나, 두루마기, 저고리 등의 섶, 소매 끝동, 깃고대, 동정을 달 때, 솔기를 꺾어

인두로 다림질을 해야 모양을 바로잡고 바느질 선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두 바닥은 거울처럼 맑고 매끄러워야한다. 인두는 부녀자의 성품을 상징할 만큼 소중한 것이었고, 그 인두가 꽃 한 화롯불 관리를 잘 하는 것도 부덕 중의 한 덕목이었다.

질화로, 자기화로, 무쇠화로, 청동화로...시대변천에 따라 변모를 거듭하고, 신분제에 따라 종류와 용도도 다양했던 화로는 이제 앓을 자리를 잃었다. 장작, 연탄, 가스, 전기...연료의 발달과 함께 진화된 난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분위기는 어쩐지 삭막한 느낌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경계심을 일으키고, 불꽃이 사위면 배반자처럼 싸늘한 냉기를 발산하는 극과 극의 이중성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화로가 발산하는 열기는 은근하고 끈질기다. 가슴에 품은 정을 오래두고 수줍게 내보이는 숯색시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끼면서 열기를 전해준다. 비록 화로는 우리 곁에서 사라졌지만, 그 화로가 발산하던 은근과 끈기, 다감한 인정만은 그냥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안수길 - 소설가>